

6자회담 재개 변화기류 보인다

美·中 등 관련국들 강경태도서 유연성 감지 남측 '先 핵 중단' 기조속 남북 신년메시지 주목

6자회담 재개 흐름에 미묘한 변화 조짐이 포착되고 있다. 회담재개의 전제조건을 둘러싸고 경쟁선 대치를 해오던 관련국들의 강경했던 태도에 '유연성'이 감지되고 있어서다. 연평도 사건 이후 연말·연초로 이어지는 긴 휴지기를 거치며 회담 재개의 분위기와 모양새를 만들어가려는 흐름으로 비쳐진다.

무엇보다도 정세흐름의 키를 쥔 미·중 양국이 협력의 틀을 복원하며 6자회담 재개를 향한 '정치적 여건'을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주목된다.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미·중 양국이 6자회담 재개전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접근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이런 맥락이다. 다음달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은 북한의 태도변화를 전제로 6자회담 재개와 북·미대화를 포함한 양자접촉 가능성이 모색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흐름 속에서 연평도 사건 이후 참예한 긴장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남북간에도 새해초 한반도 긴장완화를 향한 모종의 메시지가 교환될 것이라는 관측이 외교계에서 대두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의 단호한 태도 역시 외지를 과시하는 한편으로 북한의 확고한 태도변화를 전제로 하는 남북관계 메시지를 줄 가능성이 있고 북한 역시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대화국면에 초점을 둔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추가도발을 자제하고 모종의 '액션'을 취하고 나올 경우 큰 틀의 상황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우에 따라 북한이 수용의사를 밝힌 IAEA 사찰단의 전격적 북극 카드를 현실화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주목할 변수는 우리 정부의 대응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유라늄 농축을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의 중단에 나서야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상황전개에 따라 '부분적' 조건을 유연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주목된다.

연평도 사건이후 정부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을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북극 ▲2005년 9.19 공동성명 이행 확약 ▲한국전쟁 휴

전협정 준수 ▲탄도미사일 발사 보류 등 5대 전제조건을 주도적으로 입안해왔다.

그러나 미·중간 고위급 대화와 빌리처스 미 멕시코 주지사의 방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외교이벤트를 거치며 정부 당국자들의 어조에도 미세한 변화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관련국들과 협의에 따라서는 일부 핵프로그램이 가동 중이더라도 IAEA 사찰을 허용할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이 누그러진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이미 수용의사를 밝힌 IAEA 사찰단 북극을 고리로 6자회담 재개 조건을 둘러싼 관련국들의 논의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내달초로 예상되는 미 고위급 인사의 방한은 6자회담 재개조건을 둘러싼 관련국들의 논의 흐름에 중요한 변화의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집에 돌아가게 돼 기뻐요” 27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선착장에 도착한 주민들이 집으로 향하고 있다. 연평도 운항 정기 여객선은 풍랑으로 통제되다 몇 시간만에 정상 운항했다. /연합뉴스

“연평도 포격때 인민군 5명 사망”

대북매체 “김정은이 영웅칭호 수여 지시”

지난달 23일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우리 군의 대응 포격으로 사망한 북한 군인 5명에게 후계자 김정은(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하도록 지시했다고 대북 단파라디오 ‘열린북한방송’이 28일 전했다.

이 방송은 함경북도 ‘희령의 소식통’을 인용, “연평도 전투에서 북한 군인 5명이 사망했다는 사실이 인민군 부대 내에 발표됐다”면서 “그들에

게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하라는 김정은의 지시 내용에 대한 강연이 23일부터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이어 “이런 사실은 군부대 내에 알려져 일반주민들은 잘 모른다”면서 “전체 사망자수는 발표되지 않아, 영웅칭호를 받은 5명 외에 사망자가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또 “영웅칭호를 김정은의 이름으로 수여한 것도 눈길을

끈다”면서 “군대 내에서는 연평도 포격을 김정은이 직접 지휘했고, 그가 실제로 군을 통치하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이 소식통은 “군부대 강연에서는 사망한 군인들의 희생정신을 본받고 김정은 대장동지의 영도에 따라 인민군의 위력을 과시하자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모든 인민군 부대들은 현재도 총참모부의 지시에 따라 연발행사를 미분채 초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이용객 200만명 돌파

최근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이용객이 200만명을 돌파했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 28일 “지난해 6월10일 개원한 타운에 하루 평균 5000여명의 노인들이 꾸준히 이용하면서 지난 14일 이용객이 2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현재 노인건강타운 회원은 모두 4만4755명이다.

이 외에도 타운은 올해 77차례의 무료강연 및 공연을 갖고, 369차례에 걸쳐 1만7198명에게 무료진료를 실시했다. 자원봉사자도 1만8800여명이 참여하는 등 전국 최대규모의 노인 전문 여가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와 주한 외교사절 등 국내외 인사 1만여 명이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을 견학했고, 중국 노인관광객 4000여 명도 타운을 찾아 ‘감탄사’를 연발하기도 했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관계자는 “내년엔 더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친절봉사 정신을 함양해 노인들이 불편 없이 이용하도록 하고, 지역사회에 나눔과 봉사정신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北 김정은, CNN ‘올해 10대 관심인물’ 후보에

북한의 김정은(사진)이 CNN방송이 인터넷을 통해 선정하는 올해 10대 관심인물 후보에 포함됐다. CNN은 좋은 일을 했던 나쁜 일을 했던 간에 올해 관심을 모은 인물을 뽑아달라는 메시지와 함께 자사 홈페이지 방문객들을 상대로 인터넷 투표 이벤트를 최근 시작했다.

10명의 관심 인물을 1위부터 10위까지 순서대로 뽑는 이 이벤트에서 CNN은 대상 후보들 20명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시해 뒀으며, 여기에 김정은이 포함됐다. 관심인물 1위는 폭로전문 웹사이트 운영자인 줄리언 아산지가 차지하고 있으며, 버락 오바마 대

통령과 페이스 북 창업자인 마크 주커버그가 각각 2, 3위를 달리고 있다. 이와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올해의 10대 사건 후보군에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로 인한 ‘남북한간의 긴장 촉발’이 포함됐다. /연합뉴스



신규 아파트 승강기·놀이터 내년부터 CCTV 설치 의무

아파트를 지을 때 승강기, 어린이 놀이터, 동별 출입구 등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파트에서 상주행 등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가 빈발함에도 방범시설 설치 규정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무관리 대상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파트에서 상주행 등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가 빈발함에도 방범시설 설치 규정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무관리 대상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파트에서 상주행 등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가 빈발함에도 방범시설 설치 규정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무관리 대상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나 중앙 난방하는 150가구 이상)인 신규 공동주택은 동별 주출입구, 승강기, 어린이 놀이터 등 주요 공간에 반드시 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지하 주차장은 30대 이상 들어가는 경우 1992년부터 CCTV 등을 갖추게 해왔다.

아울러 CCTV 설치·수선비 조달 문제로 입주자 간 다툼이 잦아 이를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지급일 매달 25일로 조정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일을 매달 마지막날에서 25일로 바꾸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지급일을 매달 말일에

서 공무원 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 지급일과 동일한 25일로 조정한다. 개정안은 각종 세제공과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던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마련됐다.

아울러 부모 없이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자녀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기간을 현행 만 18세 미만에서 만 20세 미만까지 연장한다.

이와 함께 수급권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고령자 근로를 유도하기 위해 연기연금 신청대상을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확대하고 연기기간 1년 당 가산율을 6%에서 7.2%로 상향조정한다. /연합뉴스

댐 수몰민 이주정착지원금 2000만원

댐 건설 때문에 수몰되는 지역민에게 지급되는 이주정착지원금이 2000만원으로 500만원 상향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댐 건설로 생활기반과 고향을 잃은 수몰민 중 이주 정착지 로 옮기지 않는 자유이주자와 세입

자, 또는 3년 이상 무허가 건물 소유자에게 댐 건설 사업시행자가 이주정착지원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이주정착지원금은 가구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이고 생활안정지원금은 종전처럼 1명당 250만원, 가구당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예약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

고품격 메뉴, 건강한 맛, 품격있는 서비스 (500석 완비)

- ◆ 홀 : 연인, 친구, 가족(2인석, 4인석, 6인석)
- ◆ 소모임(룸) : 직장회식, 계모임(9인석, 12인석, 24인석, 32인석)
- ◆ 대모임(룸) : 돌잔치, 칠순연, 피로연, 세미나(52인석, 92인석, 150인석)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평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토·일 공휴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15:00	22,000원	12,000원	8,000원	LUNCH	11:30~15: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DINNER	16:00~22: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DINNER	16:00~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

전복구이 전문점 **전복장터**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접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의게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의 행복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 양식장 직영 도·소매
- | 활전복 전국택배 가능합니다.
- |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 |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차장 완비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